

# 평화당 ‘靑 협치내각’ 비판 “장관자리로 유혹은 통치”

### 박지원 “협치와 연정,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방식 안돼”

민주평화당이 최근 청와대가 집권 2기 내각에 야권 인사를 임박시키려는 이른바 ‘협치내각’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협치가 아닌 통치”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 앞에 장관 한 두 자리를 놓고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통치”라며 “청와대가 진심으로 협치를 바라다면 선거제도 개선과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협치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로 야권을 때보는 것은 현행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의도 어긋난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내각을 하려면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협의의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협치와 연정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방식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완전히 정체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연정하겠다는 것은 제2의 YS(김영삼)식 3당 합당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촛

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협치 건 연정이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한 개혁을 하는 개혁 입법 연대, 이러한 것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략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협치내각 제안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그때부터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청와대가 협치내각에 관한 대화의 오갔기에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이 제시한 협치내각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제언했다.

장 원내대표는 “협치는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적폐의 반복이 아닌 개혁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민 위한 협치의 핵심은 같이, 공존,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협치는 동일한 가치를 함께 양성해나가는

과정이다. 협치가 정부와 여당의 일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이어선 안 될 것”이라며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실현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체로 다당제를 인정하는 공존의 협치가 돼야 한다”며 “20대 총선 국민이 선택해준 다당제를 지켜낼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 한다. 다양한 국민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동반되는 협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협치의 마지막은 개혁정치를 펼칠 시스템의 완성”이라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개혁입법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시스템 완성이 협치의 핵심 성공 요소일 것”이라고 보았다.

장 원내대표는 아울러 “평화당은 이런 큰 원칙하에 협치내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합당한 제안인지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비대위 출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가능성無…범보수 분류 불편”

###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당 살아난다 생각 안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거론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이원통합설에 대해 “통합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나리오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은 한 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당대표 선출에 따른 당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당이 새롭게 살아나려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부 언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범보수로 분류하는 데 대해 “범보수라고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희들은 계속 중도정당을 지향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공존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범보수로 같이 분류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 별세 정미홍은 누구?... ‘박근혜 무죄석방’ 주장

### KBS 아나운서 출신... 대한애국당서 사무총장 지내

25일 별세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역시 탄핵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과 함께 지난해 7월 대한애국당 창당에 힘을 보탰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직후 지난해 3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을 겨냥해 “미음 같이선 불도저를 들고 가서 다 밀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세월호 인양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한애국당에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나 당내 갈등을 겪다 2017년 12월 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창당 멤버였던 조원진 의원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왔으며, 지난 2월 암세포가 뇌로 전이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자 대한애국당 갈등 상황을 되짚으며 “다 부질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

과거 투푸스리는 난치병으로 15년 동안 투병했던 정 전 아나운서는 혼수 상태와 사망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투푸스병은 면역계 이상으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병을 완치했지만 장기 투

병을 겪다 2017년 12월 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창당 멤버였던 조원진 의원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병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이 인용된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 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 서삼석 의원 ‘단독’ 입후보

### 8월4일 대의원대회서 추대될 듯...임기는 2020년까지 2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2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단독 입후보한 서 의원은 오는 8월4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까지 2년간이다. 3선의 무안군수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6·13재선거에서 당원 선됐다.


## 박지원 “美, 北 동창리 철거 상응 조치 따라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시설 철거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북한 행동에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시설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지역이기 때문에 (철거의) 의미가 참으로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행동 대 행동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 협정도 강하게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아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아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